

『오토기보코(伽婢子)』의 불교 수용 —호조(北條) 가문의 숙적(宿敵) 이야기를 중심으로—

박애화*

(e-mail : korea11158@gmail.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호조 가문의 숙적과 인과응보(因果應報) |
| 2. 호조 가문의 숙적과 지옥담(地獄談) | 3.1. 여인을 탐한 경우 |
| 2.1. 미우라(三浦) 가문의 경우 | 3.2. 여인을 사모한 경우 |
| 2.2. 우에스기(上杉) 가문의 경우 | 4. 나가기 |

キーワード : 伽婢子(Otogibouko), 地獄談(Tale of hell), 因果應報(Retribution), 三浦一族(Miura family), 上杉一族(Uesugi family)

1. 들어가기

가나조시(仮名草子)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아사이 료이(淺井了意: ?-1691, 이하 료이)의 『오토기보코(伽婢子)』(1666)는 총 13권 68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3편을 제외한 65편은 중국의 『전등신화(剪燈新話)』(16편), 『전등여화(剪燈餘話)』(2편), 『오조소설(五朝小說)』(45편)과 조선의 『금오신화(金鰲新話)』(2편)를 번안한 것이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오토기보코』와 중국 소설과의 영향관계에 대해 주목해왔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전거(典據) 차용과 작자의 창작을 결합시킨 ‘일본화’의 방법, 즉 번안양상에 대한 연구이다. 번안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외국 소설의 줄거리를 빌려와서 작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개작한 소설’이라는 점이다. 「번안(飜案)」이란 ‘자국의 고전이나 외국의 소설,

* 성신여자대학교, 시간강사, 일본고전문학전공

희곡 등의 대강의 줄거리나 내용을 빌려서 인정, 풍속, 지명, 인명 등에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더해 개작하는 것'이라고 사전¹⁾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명'이나 '인명'의 변용에 있어서도 작자의 의도가 가미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토기보코』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무사들이 등장한다. 이들 이야기는 무사 혹은 가문과 관련된 인물 또는 사건에 의거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특징이 있다. 필자는 『오토기보코』 「유령의 장수 품평(幽靈評諸將)」에서 품평의 대상이 되는 다케다 신겐(武田信玄), 호조 우지야스(北条氏康), 우에스기 겐신(上杉謙信),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및 그 가문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원전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작품 분석을 한 바 있다.²⁾ 분석을 통해 호조(北条) 가문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선경담(仙境談), 신선담(神仙談)과 같은 도교(道敎)적인 색채가 짙은 것을 확인하였다.³⁾

본 연구는 그 연장선에 있다. 『오토기보코』의 등장인물 중 사가미(相模) 지방의 호조 가문과 숙적의 관계였던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 보면서, 이야기의 성격과 인물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사가미는 지금의 가나카와현(神奈川縣)의 대부분이 해당되며 소슈(相州)라고도 부른다. 전국시대에 사가미 지방을 통치하던 영주들 중 대부분이 호조 가문에 패하여 영지를 잃었다. 그 중에서도 미우라 도순(三浦道寸: ?-1516, 이하 도순)⁴⁾과 우에스기 노리마사(上杉憲政: ?-1579, 이하 노리마사)가 대표적이다. 노리마사는 간토 간레이(關東管領) 우에스기 노리후사(上杉憲房)의 아들로 태어나 간레이 직을 이어받는다. 간토 간레이는 쇼군(將軍) 다음 가는 최고 관직으로 가마쿠라 구보(鎌倉公方)를 보좌하여 간토의 정무를 총괄하는 직함이다.

『오토기보코』 작품 중에서 미우라, 우에스기 두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는 권 4.1 「지옥을 보고 소생하다(地獄を見て蘇)」、이하 '지옥 소생', 권 7.2 「죽은 후 관직을 얻은 청백리(廉直頭人死司官職)」、이하 '청백리', 권 10.3 「소원을

1)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의 「翻案」 항목. 「自国の古典や外国の小説、戯曲などの大体の筋・内容を(借)人情、風俗、地名、人名などに私意を加えて改作すること」

2) 박애화(2019) 「『오토기보코(伽婢子)』의 전거자료에 대한 일고찰-다케다 신겐 관련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第32輯,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pp.170-202.

3) 박애화(2019) 「『오토기보코(伽婢子)』의 도교 수용과 호조(北条) 가문」 『일본어문학』 第83輯, 한국일본어문학회, pp.151-176.

4) 본명은 미우라 요시아쓰(三浦義同), 도순은 그의 범명이다. 사가미 오카자키 성(岡崎城)을 통치한 전국시대의 무사이다.

빌어 유령과 인연을 맺다(祈て幽靈に契る), 이하 ‘유령과 인연’, 권 12.4 「사음의 죄로 입신하지 못하다(邪婬の罪立身せず), 이하 ‘사음의 죄’ 네 편이다. 『오토기보코』에서 『전등신화』의 「수문사인전(修文舍人傳)」을 번안한 권 10.6 「빈궁한 료센과 덴구도(了仙貧窮付天狗道)」는 주인공 료센(了仙)이 덴분(天文) 말년 가마쿠라(鎌倉)에서 병사하여 고묘사(光明寺)에 묻혔다는 점과 이야기의 주제의식은 「청백리」와 유사하나, 우에스기 가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상기 네 이야기와 중국 전거와의 번안 관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번안 관계

	『오토기보코』	『전등신화』	『오조소설』
미우라 가문	「地獄を見て蘇」	「令狐生冥夢錄」	
우에스기 가문	「廉直頭人死司官職」		靈鬼志「蘇韶」
	「祈て幽靈に契る」		才鬼記「曾季衡」
	「邪婬の罪立身せず」		睽車志「龍舒人劉觀」

위의 <표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우라 가문과 관련된 이야기 「지옥 소생」은 『전등신화』 「영호생명몽록(令狐生冥夢錄)」의 번안이다. 우에스기 가문과 관련된 「청백리」, 「유령과 인연」, 「사음의 죄」 등 세 편의 이야기는 모두 『오조소설』의 번안작품이다. 이야기는 각각 동진(東晉) 순씨(旬氏)의 『영귀지(靈鬼志)』 「소소(蘇韶)」, 당(唐)나라 배형(裴鏞)의 『재귀기(才鬼記)』 「증계형(曾季衡)」과 송(宋)나라 곽단(郭象)의 『규거지(睽車志)』 「용서인류관(龍舒人劉觀)」을 번안하였다.

「지옥 소생」과 「청백리」, 이 두 이야기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후(死後) 세계를 그린 지옥담이다. 「유령과 인연」은 유령이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남자의 음욕(淫慾)을 다루었다는 면에서 「사음의 죄」와 공통점이 있다.

「지옥 소생」과 「청백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두 이야기의 내용은 모두 지옥과 관련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지옥체험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교훈담,⁵⁾ 유불(儒佛) 사상의 대립,⁶⁾ 관리들의 압제 정치⁷⁾에 대한 작자의 비판정신

5) 江本裕(2000) 「了意怪異談の素材と方法」 『近世前期小説の研究』、若草書房、pp.91-119.

6) 金永昊(2008) 「『剪灯新話』の翻案とアジア漢字文化圏怪異小説の成立—地獄譚「令狐生冥夢錄」の翻案を中心に」 『二松』 第22号、二松学舎大学、pp.275-306.

7) 松田修(1957) 「「浮世物語」の挫折—仮名草子における批判的リアリズム—」 『国語国文』 第二十六卷 第五

에 입각하여 논하고 있다. 「유령과 인연」은 주로 유령과 관련된 주제로 다루어졌으며, 「사음의 죄」 또한 불교적인 교훈담으로 언급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옥담이나 남자의 음욕(淫慾)을 중심으로 한 인물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상기 네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우라, 우에스기 가문의 인물에 중점을 두고, 가문이 이야기의 성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작자의 변안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한다.

2. 호조 가문의 속적과 지옥담(地獄談)

2.1. 미우라(三浦) 가문의 경우

『오토기보코』의 「지옥 소생」과 『전등신화』의 「영호생명몽록」은 유교를 믿는 주인공이 저승을 비방한 죄로 지옥으로 끌려갔다가 그곳을 구경한 뒤에 다시 중원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두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옥 소생」과 「영호생명몽록」의 서사 구조

「지옥 소생」	「영호생명몽록」
① 아사하라가 유학에 심취하여 불법을 믿지 않았다.	① 영호선은 강직한 유학자로 신령을 믿지 않았다.
② 이웃에 손페라는 욕심 많은 부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가족의 기도와 불공으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② 이웃에 오씨라는 욕심 많은 부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가족이 불사와 지전을 태워주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③ 아사하라가 저승을 비방하는 교카를 읊은 죄로 지옥에 불려간다.	③ 영호선은 저승을 비방하는 한시를 읊은 죄로 지옥에 불려간다.
④ 염라대왕은 아사하라의 진술에 납득하고, 손페는 다시 지옥으로 불려간다.	④ 염라대왕은 영호선의 진술에 납득하고, 오씨 노인은 다시 지옥으로 불려간다.
⑤ 아사하라가 지옥구경을 한다.	⑤ 영호선은 지옥구경을 한다.
⑥ 잠에서 깬 아사하라가 손페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유학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한다.	⑥ 꿈에서 깬 영호선은 오씨 노인이 죽은 것을 확인한다.

号、中央図書出版社、pp.31-46.

花田富二夫(1981) 「『伽婢子』教訓的要素の考察-原話離れを中心に-」 『有明工業高等専門学校紀要』 第17号、有明工業高等専門学校、pp.13-25.

「지옥 소생」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영호생명몽록」과 유사하지만,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 지옥에서의 구체적인 체험, 중원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 등은 조금씩 다르다. 본고에서는 「지옥 소생」과 「영호생명몽록」 두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영호생명몽록」의 서술이다.

영호선은 아주 강직한 선비였다. 본래가 신령 같은 것을 믿지 않고 스스로 득의만만하여 오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다. 귀신의 변화나 저승의 인과응보에 관한 일에 대해 말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큰 소리로 나서서 말을 끊었다.⁸⁾

다음은 「지옥 소생」의 서술이다.

아사하라 신노조는 소슈 지방 가마쿠라의 미우라 도슨의 먼 친척이 되는 사람이다. 총명하고 언변이 뛰어났으며 유학에 심취하여 불법을 믿지 않았다. 저승이나 윤회, 인과나 권화의 섭리를 들으면 트집을 잡아 사사건건 반박하고 헐뜯었다. 스님과 법사라 해도 공경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욕하며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를 써서 언쟁에서 이기려고 하였다.⁹⁾

「영호생명몽록」의 영호선(令狐諤)과 「지옥 소생」의 아사하라 신노조(淺原新之丞, 이하 아사하라)의 인물상은 유사하다. 두 사람은 모두 신불(神佛)을 믿지 않고, 저승의 인과응보나 윤회에 관한 말이 나오면 반드시 큰 목소리로 반박하는 강직한 유학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의 다른 점은 영호선과 아사하라가 각각 중국과 일본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호생명몽록」에서는 영호선이 선비라는 것 외에는 출신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목이 없지만,

8) 瞿佑(1378) 『剪燈新話』, 최용철 옮김(2005) 『전등삼중』(상), 소명출판, p.114. 「令狐諤者, 剛直之士也, 生而不信神靈, 傲誕自得. 有言及鬼神變化幽冥果報之事, 必大言折之.」

9) 이용미 역(2013) 『오토기보코』 세창출판사, p.113. 「淺原新之丞は、相州かまぐらゝの三浦道寸が一族の末なり。才智ありて弁舌人にすぐれ、儒学をもつぱらとして、仏法を信ぜず。迷塗流転の事、因果変化のことはりを聞ては、さま／＼言かすめて、誹あなどり、僧・法師といへどもうやまはず、口にまかせて誹謗し、理を非にまげて難じやぶる。」(浅井了意(1666) 『伽婢子』、花田富二夫等 校注(2001) 『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伽婢子』岩波書店刊行、p.97.)

「지옥 소생」의 아사하라는 가마쿠라에 사는 도슨의 먼 친척으로 등장한다.

도슨은 원래 미우라 가문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오기가야쓰 우에스기 다카히라(扇谷上杉高救)의 아들로 태어나 아라이(新井)의 성주였던 미우라 도키타카(三浦時高, 이하 도키타카)의 양자로 보내진 인물이다. 만년에 아들을 얻은 도키타카는 가독 승계에서 도슨을 배척하며 도슨과 갈등을 빚는다. 도슨은 출가하였다가 추종자들의 권유로 메이오(明応) 3년(1494)에 정변을 일으켜 양아버지를 죽이고 미우라 가문을 잇는다. 미우라 가문은 헤이안시대 이래로 미우라 반도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가미의 명문이다. 호조 가문의 초대 영주인 이세 소운(伊勢早雲)¹⁰이 간토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가미 지방을 손에 넣어야 했다. 에이쇼(永正) 9년(1512)에 소운은 병사들을 이끌고 도슨이 통치하던 오카자키 성(岡崎城)을 침공한다. 성주 도슨은 용맹하고 지혜로웠지만 소운과의 전투에서는 번번이 패하여 결국 성을 버리고 아라이 성(新井城)으로 퇴각한다. 아라이 성은 육지에서 떨어진 작은 섬 위에 건립되어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없애면 적들이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도슨은 성의 방어력에 의거하여 3년 간 호조 군의 공격을 버텨내지만 결국 아들 아라지로(荒次郎)와 죽음을 맞이한다. 이로써 수세기 동안 미우라 반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미우라 가문은 멸망하고 호조 가문이 그 영지를 장악하게 된다.

료이는 군서 『가마쿠라큐다이키(鎌倉九代記)』의 「미우라 도슨의 전사, 아라이 성의 몰락과 원령의 출현(三浦道寸討死 附 新井城没落 並 怨靈), 이하 ‘미우라 도슨의 전사’¹¹에서 도슨이 미우라 가문을 승계하게 된 계기와 과정, 호조 가문 간의 전투, 도슨의 최후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료이는 도슨에 대해 ‘매우 강직(至剛)하고 지모(智謀)가 뛰어나나 매번 전쟁에서 패배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¹²고 평가하고 있다. 도슨의 이러한 성격은 호조 가문 간의 전투에서도 드러난다. 도슨은 3년 간 성에 머물며 호조 세력에 완강하게 맞서 싸웠지만 물자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화살과 군량미가 바닥이 났고 군사들은 모두 지쳐 있었다. 측근들이 나서서 도슨에게 잠시 퇴각하여 군력을

10) 호조 가문을 일으킨 인물로, 호조 우지야스(北条氏康)의 조부이다.

11) 浅井了意(1672) 『鎌倉公方九代記』 「三浦道寸討死 附 新井城没落 並 怨靈」、国史研究会 編(1914) 『国史叢書 鎌倉公方九代記 鎌倉九代後記』、国史研究会、pp.267-278.

『北条五代記』 「三浦介道寸父子滅亡の事」와 『古老物語』 「上杉則政公の子息を、敵氏康へ出す事付 町人は頼もげなき事」에도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2) 『鎌倉公方九代記』 「三浦道寸討死 附 新井城没落 並 怨靈」、国史研究会 編(1914)、위의 책、p.269. 「城の大將道寸、至剛智謀ありと雖、度々の合戦に人数悉く討たれ」

재정비한 뒤에 다시 공략할 것을 권하지만 도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 도키타카는 불의를 저질러 구보 모치우지를 죽이고 그 공을 인정 받아 잠시 다이묘가 되기도 했지만, 나를 추방한 일에 몹시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아 공격하여 이 성을 빼앗았다. 아버지는 구보를 죽인 벌을 받아 죽었고, 나는 아버지를 친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여기서 끝이 나서 이길 수밖에 없는 군력으로도 늘 우위를 상실했다. 운에 의탁한 몸으로 도망간다고 한들 얼마나 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과의 도리는 분명한데 그 도리를 잊고 사람 손에 개죽음 당하는 것 보다 목숨을 다해 싸워 무사의 신의를 관철하고 죽음을 올바른 길에 바치려고 한다. 운이 트이는 것도 군의 길흉도 지금은 말할 것이 못된다. 만약 여기서 도망하여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떠나거라. 나는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오모리·사호타도 더 이상 주군을 설득할 수가 없어 가신들 모두 함께 싸우다 죽기로 하였다.¹³⁾

위의 인용문에서 도슨은, 양아버지의 죽음과 호조 가문의 공격을 받아 가문이 곧 멸망하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모두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양아버지는 구보 모치우지를 죽여서 본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고, 양아버지를 죽인 죄로 본인은 훌륭한 군사들을 이끌고도 전장에서 늘 패하였다.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신들은 도슨에게 피신할 것을 권유하나 무사로서 명예를 중요시하고 죽어서 후대에 이름을 남기고자 절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가신들에게는 떠나도 좋다고 했지만, 가신들은 주군과 함께 끝까지 싸우다 죽는 길을 택한다. 『가마쿠라큐다이키』의 전거 『호조고다이키(北条五代記)』에는 도슨이

13) 『鎌倉公方九代記』 「三浦道寸討死 附 新井城没落 並 怨靈」、国史研究会 編(1914)、위의 책、p.272. 「父時高不義の振舞して、公方持氏を亡し奉り、其功に矜り、漸く大名となりしかども、我を追出し給ひけるを、我甚だ憤りて、人数を催して追落し、此城を奪ひ取る。父は公方を亡し、罰に依つて亡され、我は父を討ちし罰に依つて、天命爰に尽き果て、負けまじかりける軍に、度々利を失ふ。運の傾く身を以て、たとひ落ち行きたればとて、何程の命を保つべき。因果歴然の所に理を忘れ、人手に懸りて犬死せんより、命を限りに戦うて、弓矢の義を専にし、死を善道に快くせんと思ふ。運の通塞も軍の吉凶も、今はいふべき所にあらず。若し又落行きて、命を助からんと思ふ人は、只令皆落行き給へ。我れ更に恨と思ふべからずと申されしかば、大森・佐保田も、此上は力及ばず、諸共に討死仕るべし」

가신들에게 지금이라도 떠나도 좋다는 말에 가신이 답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치고의 수령이 “정말 분하도다.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될 때이다. 평소에 주군의 은혜로운 녹을 받고서 어려울 때 태도를 바꾸는 것은 어찌 인의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백씨문집에 주군의 은혜는 우로와 같으니, 옛날의 은혜를 잊고 중요한 시기에 도주하여 세상에 살아남아 수치심을 느끼는 자 또한 있겠는가. 주군과 함께 싸우다 죽어 이름을 후세에 남기는 것은 무사의 소망이니라.”라고 말했다. 가신들은 듣고 “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각자의 뜻을 모아 지체하지 않고 문을 열어 적군을 향해 돌진하였다.¹⁴⁾

미우라 가문의 가신들은 주군이 떠나도 좋다고 했지만 주군과 신하로 만나 큰 은혜를 입었기에 죽어서도 함께 할 것을 맹세하며 적군을 향해 돌진해나간다. 『가마쿠라큐다이키』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주군과 가신들이 마지막 술을 따라 마시고는 전쟁터로 나갔다는 서술만 보인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슨과 그 가신의 언행에는 유교적인 사상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공자의 ‘천명사상(天命思想)’을, 무사로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어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것은 공자(孔子)의 ‘정명론(正名論)’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도슨은 ‘천명이 다했고(天命爰に尽き果て)’ ‘운에 의탁한 몸(運の傾く身)’이라 말하고 있다. 공자는 수제자였던 안연(顔淵)의 죽음을 두고 비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바 있다. ‘아,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¹⁵⁾ 공자는 제자 자로(子路)가 죽었을 때도 ‘아, 슬프다! 하늘이 나를 단절시키시는구나(噫! 天祝予)’라고 말하며 통곡하였다. 공자는 제자들이 죽은 것은 모두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14) 三浦浄心(1641) 『北条五代記』 卷九 「三浦介道寸父子滅亡の事」、萩原竜夫 校注(1966) 『北条史料集 北条記・北条五代記』 戦国史料叢書 第二期 第一卷、人物往来社、p.256. 「越後守が云「こは口惜き仰哉。それ人の一大事といふは、一期の終りをもてせり。年比日来恩祿を請、かゝる時にひるがへらば、豈仁の道ならん。白氏文集に、君恩雨露のごとしといへり。旧君の深恩を忘れ、此一大事を通、世に生残りて恥をさらす者や候べき、主従ともに討死し、名を後代にとゞめんは、弓矢とる身の本懐なり」と申ければ、諸卒是を聞「御返答よく申たり」と、をの／＼心ざしを一つにし、時刻移さず門をひらき、切て出る。」

15) 공자 『논어』, 박헌순 역주(2008) 『論語集註』 2, 도서출판 한길사, p.23. 「先進-8」 「顔淵死 子曰: 噫! 天喪予! 天喪予!」

고 생각했다. ‘공자에게 있어서 천(天)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만물을 생성·변화시키는 존재이며 인간의 행위의 준칙이 되는 도덕원칙을 함유한 존재로 인생법칙의 본원이다. 이러한 천(天)의 자기 의지의 표현이 ‘명(命)’이다.’¹⁶⁾ ‘명’은 곧 인간의 ‘운명(運命)’을 말한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명’이다.¹⁷⁾

제나라의 제경공(齊景公)이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운 것이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이다.’¹⁸⁾ 공자가 말하는 정명(正名)은 그 이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도리나 해야 할 행위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¹⁹⁾ 도슨과 그 가신들이 도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은, 무사로서 가신으로서 자신이 짊어진 역할을 완고하게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슨과 아들 아라지로에 관한 이야기는 「청백리」에도 나온다. 주인공 쇼하치(庄八)가 숙부 아시누마(芦沼)에게 봄에 역병이 든 이유에 대해 묻자, 아시누마는 도슨과 아라지로가 역신(疫神)을 꼬드겨 역병을 창궐시켰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부자는 원래 정직하고 용맹하여 잠시 명부의 무관직을 맡고 있었으나, 그것도 잠시 역모를 꾀하여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군사로 삼기 위해 역병을 일으킨 것이다. 그 일이 북제(北齊)에게 들통이 나서 부자는 지옥으로 보내진다.

료이는 『가마쿠라큐다이키』의 「미우라 도슨의 전사」에서 아라지로의 말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아라지로는 적들과 끝까지 맞서 싸우다 스스로 목을 베었는데 떨어져나간 머리는 3년간 눈을 감지 않았다. 승려를 불러 불공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 오다와라(小田原) 소세이사(総世寺)의 선승(禪僧)이 일야좌선(一夜坐禪)하며 와카를 읊어주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다. 아라지로가 목숨을 끊은 곳의 주변은 경작을 하지 않아 풀이 무성하였고, 가축이 가끔 들어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즉사하였다. 그 뒤 짐승들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인 줄 아는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가마쿠라큐다이키』에서 도슨과 그 아들은 문무가 뛰어나고 의지가 굳세며 죽어서도 쉽게 타협하지 않

16) 최문형(1998) 「공자의 天命論과 鬼神論」 『東洋哲學研究』 第18輯, 東洋哲學研究會, p.350.

17) 최문형(1998), 위의 논문, p.351.

18) 공자 『논어』, 박현순 역주(2008), 앞의 책, p.114. 「顔淵-11」 「齊景公問政於孔子. 孔子對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19) 김지훈(2019) 『孔子 正名思想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9.

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 기술하고 있다. 부자의 이러한 아집이 「지옥 소생」의 주인공 아사하라에 투영된 것이다.

2.2. 우에스기(上杉) 가문의 경우

「청백리」와 「소소」는 주인공이 저승 사람이 된 친척을 만나 지옥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전해 듣는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청백리」와 「소소」의 서사구조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백리」와 「소소」의 서사구조

「청백리」	「소소」
① 다이칸 쇼하치는 지나치게 백성들을 착취하여 꿈 속에 저승 사자가 나타나 해하려 하자 죽은 숙부 아시누마의 중재로 삭발로 마무리하였다.	① 중모현령이었던 소소는 죽어 사촌인 소절의 꿈에 나타나 의장대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죽임 대신 소절의 머리 카락을 모두 밀어버렸다.
② 아시누마는 쇼하치를 찾아와 쇼하치의 악행을 열거하고, 성묘 한 번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해 한다.	② 소소는 소절을 여러 번 찾아와 생전에 봐두었던 아름다운 곳으로 이장해줄 것을 부탁한다.
③ 쇼하치는 아시누마와 이승과 저승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③ 소절은 소소와 이승과 저승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④ 아시누마는 쇼하치에게 도심을 굳건히 할 것을 부탁하고는 떠났고, 쇼하치는 극락왕생을 이룬다.	④ 소소는 수문랑에 제수되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사라진다.

「청백리」와 「소소」 두 이야기의 서사구조에 대한 비교를 통해, 「청백리」는 이야기의 큰 흐름에 있어서 전거와 유사하나,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 저승 사람과 조우한 계기, 저승 사람이 주인공을 찾아오는 이유, 결말의 서술은 모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청백리」의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거와의 차이를 고찰하고 우에스기 가문과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소소」의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을 보겠다.

소소는 자가 효선으로 안평 사람이다. 그는 중모현령으로 있다가 죽었다. 그의 백부 소승은 남중랑군사로 있다가 죽었다. 아들들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양성에 이르렀을 때다. 소승의 아홉 번째 아들 소절이 밤에 꿈에서

의장대를 보았는데 그 대열은 엄숙하기 그지없었다.²⁰⁾

다음은 「청백리」의 서술이다.

아시누마노 지로 우에몬 시게토키는 우에스기 노리마사가 가마쿠라의 간레이로 있던 시절, 소슈 후지사와의 다이칸으로 있다가 병사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조카인 미호노 쇼하치가 다이칸이 되었다. 아시누마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정인도 두지 않고 오로지 청렴결백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냈다. 딱히 학문에 전념하거나 불교에 귀의한 것도 아니었다. 천성이 정직하고 올바른 도리를 지켜 백성을 불쌍히 여기며 조금도 물욕이 없었다. 그와는 반대로 쇼하치는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지나치게 탐욕을 부려서 사람들은 쇼하치가 분명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손가락질하며 미워하고 싫어하였다.²¹⁾

위의 두 인용문을 보면, 「소소」과 「청백리」 두 편의 이야기에는 모두 관직에 종사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소소」에서 소소(蘇韶)는 안평 사람으로 중모현령(中牟令)의 관직에 있다가 죽는다. 소소의 백부 소승(蘇承)도 남중랑군사(南中郎軍司)라는 관직에 있다가 죽는 인물이다. 「청백리」에서 아시누마시게토키(芦沼重辰, 이하 아시누마)는 노리마사가 가마쿠라 간레이로 있던 시절 다이칸(代官)²²⁾ 직에 있다가 병사한다. 아시누마는 생전에 학문에 전념하거나 불교에 귀의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이 바르고 오직 청렴결백을 목숨처럼 여기며, 물욕 없이 백성들을 대하였기에 죽어서도 저승의 관원이 된다. 「소소」에서 주인공 소절(蘇節)은 소승의 아들로 등장하지만 관직에 종사하였다는 서술은 없다.

20) 『靈鬼志』 「蘇韶」 「蘇韶，字孝先，安平人也，仕至中牟令，卒。韶伯父承，爲南中郎軍司而亡。諸子迎喪還，到襄城。第九子節，夜夢見鹵簿，行列甚肅。」

21) 이용미 역(2013), 앞의 책, p.215. 「芦沼次郎右衛門重辰は、かまぐらの管領上杉憲政公の時に、相州藤沢の代官として、やまひによりて死す。芦沼が甥三保庄八と云もの、其跡に替りぬ。芦沼は一生のうち妻をもたず妾もなく、たゞその身を潔白に無欲をおもてし、さして學問せるにもあらず、又後世をねがふにもあらず。天性正直正道にして百姓をあはれみ、すこしも物をむさぼる思ひなし。それに引かへて庄八大到百姓を虐げ、欲ふかくむさぼりければ、この人ひさしくつゞくべからずと、つまはじきをしてにくみきらひなり。」(『伽婢子』、花田富二夫等 校注(2001)、앞의 책, pp.189-190.)

22) 『国史大辞典』(吉川弘文館) ‘郡代·代官’ 항목. ‘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 이후, 막부의 직제(職制)에 따라 편성된 정관(正官)의 대리(代理) 혹은 향촌(鄉村)을 지배했던 지방관을 가리킨다. 다이칸 제도가 정비되었던 에도시대에는 막부와 제번(諸藩)의 지배기구로 영지의 농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방관의 직명이다.’

반면에, 「청백리」의 주인공 미호노 쇼하치(三保庄八, 이하 쇼하치)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지방관으로 등장한다. 숙부의 뒤를 이어 다이칸 직에 오르나, 정직하고 청렴결백했던 숙부와는 달리, 쇼하치는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미워한다. 소절이 곤형(髡刑)²³을 받은 이유는 꿈 속에서 저승의 규율을 범했기 때문이다. 즉 보면 안 되는 저승의 의장대를 본 것이다. 반면 「청백리」에서 쇼하치는 백성들을 착취한 업보로 저승의 사자들이 나타나 그를 끌고 가서 목을 베려 한다. 그 때 아시누마가 나타나 중재를 해준 덕분에 쇼하치는 죽음을 면하고 마음에도 없는 출가를 한다.

『오토기보코』 「사음의 죄」에도 관직에 종사하는 인물로 우에스기 가문의 인물이 등장한다. 주인공 시라이시 우에몬조(白石右衛門尉, 이하 우에몬조)는 호색한(好色漢)이며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봉공하고자 마음을 먹는다. 보병대장(足輕大將)²⁴인 아버지가 미리 아들의 공적에 대해 이야기 해 둔 덕분에 23살의 젊은 나이에 주군을 알현하게 된다. 「청백리」에서 쇼하치는 정직한 숙부의 뒤를 이어 관직에 오른 뒤 탐관오리로 전락한 것이고, 우에몬조는 관직에 오르기 전부터 호색한에다 아무런 재능이 없는 인물이다.

료이는 『오토기보코』에서 우에스기 가문의 사람을 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인물로 등장시킨 것은 료이가 생각하는 우에스기 가문의 가풍과 관련이 있다. 료이는 『가마쿠라큐다이키』에서 우에스기 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충신인)혼마를 도자마로 퇴출시키고, 이마타는 구독으로 살해하고는 주군에게 무고하게 참소하여 천벌이 내려져 갑자기 죽은 것이라고 공표한다. 호조 가문과 내통하던 사람들은 간신 스가노와 우에하라에게 뇌물을 주고 유녀를 불러 주연의 자리를 베풀었다. 오늘은 향도 모임, 내일은 다도 모임으로 매일 회합하여 고급의 신기한 물건들을 모으고, 바다와 육지의 진귀한 음식으로 대접한다. 난무와 유흥을 일삼고, 금은을 모래와 같이 뿌리니, 지출은 점점 늘어나고 금전에 대한 탐욕은 커져만 갔다. 백성을 착취하며 고리대를 징수하고

23) 죄인의 머리카락 일부 혹은 전부를 밀어버리는 형벌이다.

24) 활 부대(弓組) · 총 부대(鉄砲組) · 창 부대(槍組) 등 보졸(步卒) 부대를 지휘하는 무사를 일컫는다.

세금을 무겁게 매기며 가역을 부가하고 사람들에게 군역을 이행하도록 하니, 나라가 점점 쇠퇴해갔다. 이익과 손실, 올바름과 그릇됨을 가리는 송사가 끊임 없었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 선뜻 나서서 재단하지 못하고 싸움과 도적질이 각 지방에 성행하며, 상하를 지키기 않고, 가풍을 어지럽히는 일이 소란하나, 노리마사는 그저 멍하니 안방에 은둔하며, 만사를 두 사람에게 맡기고 가로의 간언도 듣지 않았다. 가문의 병사들은 무사의 법도를 잊고, 주군에 대한 충의와 신의도 잃어버렸다.²⁵⁾

위의 인용문에서 노리마사는 간신들의 말만 듣고 충신을 해(害)하는 무능한 주군으로 묘사되고 있다. 간신인 스가노(菅野)와 우에하라(上原)에게 모든 정무를 맡긴 결과 관리들은 일은 하지 않고 간신들의 비위를 맞추는데 바쁘고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며 세월을 보낸다. 지방 관리들은 간신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무거운 세금을 매기며 온갖 악행을 일삼았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나날이 곤궁해졌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송사가 끊이지 않았으나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라가 어지럽고 도둑이 득실거렸지만 우에스기는 오직 방에만 틀어박혀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충신들이 직언해도 주군이 들으려 하지 않자 모두 마음이 멀어져갔다.

결국 노리마사는 간레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간토가 혼란에 빠지면서, 호조 우지야스에게 영지를 내어주고 만다. 성을 버리고 에치고(越後)로 도주한 노리마사는 우에스기 겐신에게 복수를 의탁하며 간토 간레이 직을 물려준다. 『호조키(北条記)』²⁶⁾와 『고요군칸(甲陽軍鑑)』²⁷⁾ 등 근세 초기의 군서에서도 노리마사를 무능하며 겁쟁이 주군이라 혹평하였다.

25) 『鎌倉公方九代記』 「長尾伊玄入道知慮 附 菅野・上原奢侈」、国史研究会 編(1914)、앞의 책、pp.350-351. 「本間を外様に突出し、井俣をば鳩毒を以て殺し、当家の大身に、無実の讒を構へし天罰当りて、頓死せりと披露す。北条家に内通せし人々は、菅野・上原に賂を入れ、遊女を進め酒宴に長じ、今日は十炷香の会、明日は茶湯の席とて、日毎に会合し、古今の奇物を集め、水陸の珍饈を尽し、乱舞遊興を事とし、金銀を蒔散らすこと砂子の如し。其費愈重畳にして、其貧益繁多なり。百姓を虐げ高民を徴り、賦歛苛役の繁き上に、諸方手使ひの軍役を取りければ、国家衰へ勢力疲れ、非抛の争論得失の邪正、訴へ泰るもの門に充つれども、出でて裁断せず。喧嘩盜賊、国郡に流行して上下相背き、家風さだち猥にして騒しけれども、憲政はたゞ惘々として、奥深く籠り居て、万事皆両出頭の支配に任せ、家老の諫をも聞入れなれず。諸士武道の法を忘れ、郎従忠義の信を失ふ。」

26) 著者不明 『北条記』 卷三 「上杉敗北 並 竜若最後之事」、萩原竜夫 校注(1966)、앞의 책、pp.90-96.

27) 『甲陽軍鑑』 本篇 卷五 「よわすぎたる大将の儀」、酒井憲二 編(1994) 『甲陽軍鑑大成』 第一卷 本文篇 上、汲古書院、pp.121-145.

이와 같이 료이는 「청백리」와 「사음의 죄」를 통해 노리마사 통치 시기 사회의 부조리와 지방 관리들의 부정을 비판하고, 재능과 상관없이 요직을 맡고, 관직을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가문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세습제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청백리」에서 아시누마는 쇼하치에게 관리로서 사욕을 버리고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며 주군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만이 죽어서 저승의 수문랑에 오를 수 있다고 알려준다. 현재 수문랑에 임용된 사람은 아시누마를 포함하여 총 여덟 명으로 이들이 성불하여 은퇴하면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다. 지금은 저승 관아에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로 장마당을 이루지만 불충불효한 간사한 자들 뿐, 문관이고 무관이고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이는 전거에는 없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오직 재력과 권력으로 관직을 얻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면 결국 성불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3. 호조 가문의 숙적과 인과응보(因果應報)

3.1. 여인을 탐한 경우

「사음의 죄」와 「용서인류관」은 주인공이 여인을 간음한 과보로 입신출세의 기회를 잃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사음의 죄」와 「용서인류관」의 서사구조

「사음의 죄」	「용서인류관」
① 우에몬조는 보병 대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군을 알현하게 되었다.	① 감주관인 아버지를 둔 류관은 과거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② 우에몬조는 세 들어 살고 있던 주인집 딸의 미모에 흠심을 품고 첩통감시를 피해 소원을 이룬다.	② 요거는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기 위해 배를 빌렸는데 배주인 딸의 미모에 흠심을 품고 첩통감시를 피해 소원을 이룬다.
③ 우메몬조의 꿈에 천제의 사신이 나타나서 원래 녹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부정행실을 저질러 천제께서 다시 취소하였다고 통보한다.	③ 류관 부부의 꿈에 천제의 사신이 나타나서 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부정행실을 저질러서 천제께서 제명하였다고 통보한다.
④ 우에몬조는 주군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p>졸아 결국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방랑생활을 한다. 상심한 아버지도 관직에서 물러나 출가하였다.</p>	<p>④ 요거는 두 번째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자격을 박탈당하여 관직을 얻지 못한다. 그 뒤 향시에는 합격하나 평생 진사에는 합격하지 못하였다.</p>
--	---

「사음의 죄」와 「용서인류관」 두 이야기의 서사구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음의 죄」는 이야기의 큰 흐름은 전거와 유사하나 등장인물, 결말의 서술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두 이야기의 등장인물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용서인류관」의 서술이다.

용서 사람 류관은 평강 허보의 감주관이다. 그의 아들 요거는 자가 당경이다. 어느 날 가화에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배 한 척을 빌렸다.²⁸⁾

다음은 「사음의 죄」의 서술이다.

시라이시 가몬노카미는 가마쿠라의 우에스기 가문을 섬기던 보병 대장이었다. 그의 아들 우에몬조는 스물세 살이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봉공하고자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아들의 공적을 말해놓은 덕분에 이윽고 주군을 알현하게 되었다. 한편 우에몬조가 세 들어 사는 주인집에 딸이 하나 있었다. 열일곱살 정도 된 딸의 용모가 무척 아름다웠기에 우에몬조는 흑심을 품고 환심을 사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중략) 온통 이 딸에게만 마음이 빼앗긴 우에몬조는 주군에게 봉공하려는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일은 뒷전이고 호시탐탐 주인집 딸을 얻고자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중략) 그날 밤, 마침 집주인은 친척에게 급한 일이 생겨 외출한 채 밤새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우에몬조는 몰래 딸의 방에 숨어들어가 드디어 간절히 원하던 소원을 이루고는 펄 듯이 기뻐하였다.²⁹⁾

28) 『睽車志』 「龍舒人劉觀」 「龍舒人劉觀仕平江許浦監酒。其子堯舉，字唐卿，因就嘉禾流寓赴試，僦舟以行。」

29) 이흥미 역(2013), 앞의 책, pp.396-397. 「白石掃部正は、かまくらの上杉家につかへて足輕大將なり。その子右衛門尉は年すでに廿三、父にしたがひて、おなじく奉公をつとめんとす。より／＼言上して、すでに目見えせん事を定めらる。その借たる家にむすめあり。年十七八見めはなはだうるはしかりければ、右衛門尉心をかけてさま／＼つくろへ共 (中略) 右衛門尉、たゞ此女にまどひて、奉公の心ざし傍になり、とかく透間をうかゞひし処に (中略) 其夜しも、家のあるじ、一族の中に急用ありとて出て行つゝ、夜ひとよ帰らず。右衛門尉よきまぞと思ひ、ひそかにむすめの部屋にしるのびて心ざしをとげ、よろこびにあまりけり。」(『伽婢子』、花田富二夫等 校注(2001)、 앞의 책, p.360.)

「용서인류관」에서 주인공 요거(堯擧)는 과거시험을 치르러 가기 위해 배한 척을 빌렸는데 배우인 딸의 미모에 마음을 빼앗긴다. 요거는 결국 배우인의 철통감시를 피해 소원을 이룬다. 우에몬조는 가마쿠라 우에스기 가문³⁰⁾의 보병대장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봉공하고자 마음을 먹는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의 공적을 말해 놓아서 곧 주군을 알현하게 되었는데, 세 들어 사는 주인집 딸의 미모에 반해 주군에게 봉공하려는 마음은 뒷전이고 호시탐탐 주인집 딸을 간음하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끝내 소원을 이룬다.

소원을 이룬 우에몬조는 이튿날 주군을 알현하기 위해 대기하던 장소에서 간레이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결국 벼슬을 얻지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상심한 아버지도 관직에서 물러나 출가한다. 이야기의 끝에 작자는 입신출세 하고자 하는 사람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 하늘도 이를 미워하여 벼슬과 녹봉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

사음(邪淫)은 불교의 오계(五戒)³¹⁾ 중 세 번째 계율에 속한다. 불교경전 『무량수경(無量壽經)』³²⁾에는 사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성에 눈독을 들여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자기 배우자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남모르게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드디어 법도를 어기게 된다.’ 불교의 셋째 죄악인 사음을 한 대가로 현세에 받는 고통을 ‘세째 고통’이라고 하고 내세에 받는 죄보를 ‘세째의 불길’이라고 한다.³³⁾ 모기종(冒起宗)은 『태상감응편(太上感應篇)』³⁴⁾의 주석을 달면서, 사음은 ‘명리(名利)를 해친다’고 했다. 리등(李登)이 간음을 범하여 장원 급제에 재상이 될 운명을 박탈당하고, 의흥(宜興)의 목재 장수는 간음을 범하려다 호랑이한테 목덜미를 물려가고 말았다.³⁵⁾

30) 가마쿠라 우에스기는 야마노우치(山内)·오우기가야쓰(扇谷)·이누카케(犬懸)·다쿠마(宅間) 네 유파가 있다. 이야기의 결말에 주군이 간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인공 우에몬조와 「유령과 인연」에 등장하는 한나이는 시라이시라는 같은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료이가 간레이 우에스기 가문의 동일 인물을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31) 불교에서 오계란 불살생(不殺生), 불투도(不偷盜), 불사음(不邪淫), 불망어(不妄語), 불음주(不飲酒)를 가리킨다.

32) 료이는 생전에 『무량수경』의 주석서(鼓吹)를 펴낸 바 있다.

33) 범회연구원(1998) 『무량수경』 정우서적, pp.130-132.

34) 중국 남송(南宋)의 이창명(李昌齡)이 찬술한 권선서(勸善書)로, 명청(明清)시대에 크게 유행하였고 중국 민중도교(民衆道敎)의 성전(聖典)으로 일컬어진다. 일찍이 한국과 일본에도 유입되어 한·일 민중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35) 김지수 옮김(2002), 『불가록』 전남대학교 출판부, p.219.

전거 「용서인류관」의 요거도 간음으로 결국 장원급제의 운명을 박탈당하고 평생 향시 급제에만 만족하며 살아야 했다. 요거에 비해 우에몬조의 대가는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에몬조의 떠돌이 생활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관직을 그만 두고 출가하는 것으로, 아들의 짓값을 치르게 된다.

료이는 남자의 사음을 다루는 이야기에 우에스기 가문의 인물을 등장시켰는데 『오토기보코』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주인공 우에몬조에 대해 그의 성격과 직책 외에는 실존 인물인지조차 밝혀진 것이 없다. 필자는 사음이라는 주제와 주군 노리마사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료이의 군서 『가마쿠라큐다이키』에서는 주군 노리마사의 인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노리마사는) 어린 시절 간레이인 아버지 노리후사가 세상을 떠나고 주변 의 돌봄 없이 어른이 되었으니, 결코 백성의 근심을 알지 못하며, 사람들의 조롱도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다. 사치가 극에 달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색을 탐닉하며 술에 빠져있다. 나라의 정치는 꿈에서도 듣지 않으려 한다. 우에스기 가문을 대대로 섬겨온 가신 오이시·오바타·나가오·시라쿠라와는 거리를 두고, 하급 무사들을 대하는 눈길에는 사랑이 없으며 말을 거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 스가노와 우에하라와 같은 간악하고 사욕에 찬 무리들이 출세하여 마음대로 정무를 수행하니, 두 사람에게만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쳐서 노리마사에게 잘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하니, 공이 없는 자도 자리를 차지하고 충절도 없이 녹봉을 받는다. 또한 젊고 충공이 있는 자는 아첨을 하지 않았다고 이유로 노리마사에게 중용되지 못하고 권상을 받지 못해 주군을 원망하게 된다. 한마디로 주군은 사람을 보는 재주가 없고,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또한 없다.³⁶⁾

위의 인용문을 보면 료이는 노리마사의 어리석은 면을 부각하고 있다. 노리마사는 주군으로서 간신들의 말만 듣고 국정을 돌보지 않으며 사치를 부리고

36) 『鎌倉公方九代記』「公方晴氏与北条手切 附 管領憲政行跡」、国史研究会 編(1914)、앞의 책、pp.339-340. 「幼稚の時、父管領憲房に後れ、我儘に成人して、仮にも民の憂を知らず、かけても人の嘲を顧みず、大に奢を極め、甚だ美を好み、色に淫し酒に耽り、國家の政道は夢にも聞入れ絵はず。譜代の老臣大石・小幡・長尾・白倉の四家老をば、遠く退けて隔てられ、被官の郎従には、目に見ながら愛もなく、言葉をだにかけられず。菅野大膳・上原兵庫とて、佞奸邪欲の者出頭して、政務を己が儘に行ひ、諛うて賂を入るゝをば、憲政に能くいひなし、功なきに高知を与へ、忠なきに大祿を授け、又若し忠功ある者は、諛ふ事なきを以て、憲政に取成せず。勸賞なければ恨を合み、総じて人を知る才もなく、心を計る智もなし。」
상기 인용문과 유사한 서술은 『北条記』卷三ノ二「上杉敗北 並 竜若最後之事」에도 있다.

주색(酒色)에 빠져 백성들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았다. 실권을 잡은 간신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였고 그 주변에는 아첨과 뇌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관리들이 득실거렸다. 공적을 쌓은 충신들에게는 아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위와 녹봉을 제때 내리지 않아 주군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멀어져 갔다. 「사음의 죄」에서 우에몬조가 호색한으로 등장한 것은 여색을 밝히는 노리마사의 투영으로 볼 수 있겠다.

3.2. 여인을 사모한 경우

「유령과 인연」과 「증계형」은 주인공이 유령을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지는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의 서사구조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유령과 인연」과 「증계형」의 서사구조

「유령과 인연」	「증계형」
① 히라이 성은 우에스기 노리마사가 살던 곳으로 지금은 호조 신로쿠로가 관리하고 있다.	① 염주 지방의 방어사 증효안의 손자 증계형은 사택의 서쪽 구석에 있는 건물에 혼자 살았다.
② 경국지색인 노리마사의 딸 이야코가 이곳에서 가신 한나이의 죽은 영혼에 놀라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로쿠로는 만나기를 소원한다.	② 경국지색인 왕사군의 딸 여정이 이곳에서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형은 만나기를 소원한다.
③ 어느 날 이야코는 시녀 한 명을 대동하여 나타나서 신로쿠로와 두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③ 어느 날 여정이 시녀 두 명을 대동하여 나타나서 계형과 두 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④ 신로쿠로가 여인의 정체를 누설하여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다.	④ 계형이 여인의 정체를 누설하여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진다.
⑤ 신로쿠로는 여인과의 못다한 사랑으로 병을 얻어 의사가 지어준 약을 먹고 기운을 차린다.	⑤ 계형은 여인과의 못다한 사랑으로 병을 얻어 방술과 약으로 치료하여 기운을 차린다.
⑥ 날이 흐리면 나타나곤 했던 한나이의 혼령은 범회를 열어 극락왕생을 빌어 주니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⑥ 나중에 계형은 북망산에 묻힌 여인의 혼이 날이 흐리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읊었던 시의 뜻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사음의 죄」는 이야기의 큰 흐름에 있어서 「증계형」과 유사하나 등장인물, 유령의 정체와 죽은 이유, 결말의 서술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유령의 정체와 죽은 이유를 중심으로 등장인물과 가문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증계형」의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을 보겠다.

대화 4년 봄에 감주방어사 증효안의 손자 증계형은 사택의 서쪽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집은 매우 크고 아름다웠으나 증계형 혼자만 그 곳에 살았다. 어느날 하인이 증계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왕사군의 따님께서 이곳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따님은 절세미인이셨지요. 가끔 대낮에도 그 따님의 혼령이 이곳에 나타나곤 하니까 도련님께서서는 조심하십시오.” 증계형은 젊은 나이의 호색한이었기에 그 영험함을 한 번 보고 싶었을 뿐 귀신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다. 그는 자주 좋은 향을 사르고 속세의 사람들을 멀리 하면서 한적한 곳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골똘히 빠지곤 했다.³⁷⁾

다음은 「유령과 인연」 이야기 속 우에스기 가문에 대한 기술을 보겠다.

고즈케 지방의 히라이 성은 원래 우에스기 노리마사가 살던 곳이었다. 호조 우지야스가 이 성을 함락시킨 탓에 노리마사는 에치고로 피신하여 나가오 겐신의 비호를 받으며 다시 한 번 가운을 일으키고자 도모하였다. 히라이 성은 호조 신로쿠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 성 안의 한 곳은 금박과 은박으로 꾸며져 있고 병풍과 장지문 모두 다양한 화조와 초목 그림이 그려져 있어 아름답기가 그지없었다. (중략) 이곳은 그 옛날 노리마사의 딸인 이야코가 거처하던 곳이었다. 열다섯 살이던 이야코는 세상에 보기 드문 미인인데다 마음씨가 곱고 착하며 정도 많았다. 그래서 직접 대면한 사람이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 모두 그녀를 사모하며 애를 태웠다. 노리마사는 이야코를 번듯한 권문세도가에 시집보내어 인척관계를 맺으려고 마음먹고 애지중지하며 따로 이별채를 꾸며 기거하게 하였다. 노리마사의 부하 가운데 시라이시 한나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야코를 보고 첫눈에 반하였다. 상사병에 걸린 한나이는 사모하는 마음을 적은 편지를 바람결에 보내듯 허술히 보낸 바람에 사실이 들통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이 잘려 죽었다. 한나이가 죽은 지 백일 정도 지난 어느 저녁 나절, 이야코가 갑자기 무언가에 놀라 기절한 채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필시 한나이의 죽은 영혼이 저지른 짓일 거라고 쭈군거렸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신로쿠로는 ‘설령 유령일지라도 그토록 아리따운 미인을 만나 정을 나눈다면 얼마나 기쁠까. 살면서 그보다 더 좋은

37) 『才鬼記』 「曾季衡」 「大和四年春，監州防禦使曾孝安有孫曰季衡，居使宅西偏院。屋宇壯麗，而季衡獨處之。有僕夫告曰：「昔王使君女暴終于此，乃國色也。晝日其魂或時出現，郎君慎之。」季衡少年好色，願觀其靈異，終不以人鬼爲問。頻炷名香，頗疎凡俗，步遊閒處，恍然疑思。」

일은 없을 텐데.’라며 오로지 이야코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아침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꽃을 바치며 남몰래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원하였다.³⁸⁾

「증계형」에서 이야기의 배경은 주인공 증계형(曾季衡)의 사택이다. 증계형은 감주 방어사(監州防禦使) 증효안(曾孝安)의 손자로 크고 아름다운 사택에 혼자 살고 있었다. 「유령과 인연」의 히라이 성(平井城)은 원래 노리마사가 살던 곳인데, 호조 우지야스에게 쫓겨나서 지금은 호조 가문의 가신 호조 신로쿠로(北条新六郎)가 관리하고 있다. 노리마사의 딸이 기거하던 곳은 온갖 금박과 은박으로 꾸며져 있었고 병풍과 장지문도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정원과 화원도 운치 있게 꾸며놓았다. 전거에는 없는 사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노리마사의 사치스런 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유령의 신분과 죽음에 대해 「증계형」에서는 왕사군(王使君)³⁹⁾이 성을 다스리고 있을 때 미모의 딸 여진(麗眞)이 아버지를 따라와 그곳에 기거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령과 인연」에서 노리마사의 딸 이야코(彌子)의 죽음은 노리마사를 섬겨온 시동(侍童) 시라이시 한나이(白石半内)의 망혼의 소행이라 기술하고 있다. 시라이시 한나이는 미모의 이야코를 한 번 보고서 사랑에 빠져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아무도 모르게 죽임을 당한다. 한나이가 죽은 지 백일 정도 지나자 이야코도 무엇인가에 놀라 기절한 채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다. 사람들은 모두 한나이의 소행이라 말한다. 죽은 망령이 나타나서 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괴이 소설에서 흔한 소재이나, 노리마사의 부하와 딸을 등장시킨 데는 료이의 고심이

38) 이용미 역(2013), 앞의 책, pp.324-325. 「上野の国、平井の城は、上杉憲政のすみ給ひし所なるを、北条氏康これをせめおとし、憲政は越後に落行て長尾謙信をたのみ、二たび家運をひらかん事をはかり給ふ。平井の城には北条新六郎をいれをかれし処に、城中に一間の所あり。金銀をちりばめ屏風・障子みな花鳥草木いろ／＼の絵をつし、奇麗なる事いふばかりなし。(中略)是はそのかみ憲政の息女弥子生年十五歳、みめかたち世にたくひなき美人にて、心のなまげ色ふかく、ゆうにやさしかりければ、見る人聞人みな思ひをかけ、心をなやます。憲政はいかなる高家権門の輩にも合せて、家門の縁をむすばんとおぼして、てうあひふかく、別にこの一間をしつらひをかれし所に、家人白石半内といふ小性たゞ一目見そめまいらせ、心地まどひて堪かね、風のたよりにつけて、文ひとつまいらせしに、此事あらはれ、半内はひそかにくびをはねられたり。その後百日ばかり過て、むすめ弥子日暮がた、にはかにおびえて絶入給ひ、つるにむなしくなり給へり。さだめて半内が亡魂のしわざならんと聞つたへし。新六郎此物語を聞て、「たとひ幽霊なり共、かゝる美人に逢てかたはらほ、さこそうれしからまし。今生の思ひでなに事かこれにまさらん」と、しきりに思ひそめて朝夕は香をたき、花を手向て、人しれず、れんぼのこゝろつきて、いのりけり。」(『伽婢子』、花田富二夫等 校注(2001)、앞의 책, pp.290-291.)

39) 사군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지방의 군 태수들을 감찰하는 관직이다.

있었을 것이다.

시라이시 한나이는 이야코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 만으로 죽임을 당한다. 『태상감응편』에 이런 말이 있다. ‘견타색미, 기심사지(見他色美, 起心私之).’⁴⁰⁾ 즉 ‘다른 사람의 아내나 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심이 일어 차지하려는 마음’을 말한다. 모기중은 주석에 ‘이러한 염두가 한 번 일어나면 비록 실제 그런 일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귀신의 정벌을 피하기 어렵다. 무릇 모든 죄악 가운데 사음이 으뜸⁴¹⁾’이라고 적었다. 『태상감응편』에서는 몸 안의 삼시신(三尸神)과 조왕신(寵神)이 우리 몸을 따라 다니며 잘못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하늘에 고함으로 반드시 업보를 받게 된다고 했다.⁴²⁾ 『무량수경』에서도 ‘악한 짓은 비단 사람에게만 알려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도 알려지고, 해와 달도 굽어보며, 천지 신병도 이를 소상히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히 삼악도의 한없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⁴³⁾ 보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도 천제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이는 아가씨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벌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사음(不邪淫) 계율의 출발점은 감각적인 욕망은 완전히 채워지는 일이 없다는 것에 있다. 살아 있는 한 갈애(渴愛), 즉 오욕에 대한 애착은 계속된다. 죽어서도 갈애는 계속된다. 그 갈애 때문에 다시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⁴⁴⁾ 때문에 죽은 한나이는 흐린 날이 되면 산발한 머리와 흰 옷 차림으로 다시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

모기중은 또 사음의 12가지 해악(害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그 중에 ‘처자식을 해친다’라는 내용이 있다. ‘불경(佛經)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남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자기 아내나 딸이 음란한 것은 남의 아내나 딸을 간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아내나 딸을 가지고 간음의 빛을

40) 朴在鍾(1935) 『太上感應篇』 中央印刷所, p.5.

41) 김지수 옮김(2002), 앞의 책, p.215.

42) 朴在鍾(1935), 앞의 책, p.3. “또 삼태성과 북두성의 신명이 사람의 머리 위에서 사람의 죄악을 기록하여 운수와 수명을 빼앗고, 또 삼시신이 사람의 몸 안에 있으면서 매번 경신일이 되면 그때마다 천상에 올라가 그 사람의 죄악과 잘못을 보고하고, 매달 그믐날에는 조왕신이 또한 그렇게 한다. 무릇 사람에게 잘못이 있으면 크게는 수명을 빼앗고 작게는 운수를 빼앗는다.(又有三台北斗神君, 在人頭上, 錄人罪惡, 奪其紀算, 又有三尸神, 在人身中, 每到庚申日, 輒上詣天曹, 言人罪過, 月晦之日, 寵神亦然, 凡人有過, 大則奪紀, 小則奪算.)”

43) 법회연구원(1998), 앞의 책, p.131.

44) 한성자(2013) 「경전을 통해서 본 성과 성교육에 대한 불교의 관점」 『종교교육학연구』 제4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p.8.

값고, 게다가 후손까지 끊기는 것이다. 이는 단지 책속에서나 볼 수 있는 인과 응보가 아니다⁴⁵⁾라고 말하고 있다.

료이가 유령 이야코를 노리마사의 딸로 설정한 것은, 아버지 노리마사가 주군으로서 여색을 밝힌 것에 따른 과보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리마사는 딸을 위해 별채까지 만들어 애지중지 키워 권문세도가에 시집보내고 싶었으나 결국 하인의 명령으로 허무하게 죽은 것이다. 군서나 다른 가나조시 작품에는 노리마사의 딸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료이의 창작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노리마사의 적자 다쓰와카마루(童若丸)에 대한 서술은 『호조키』, 『고로모노가타리(古老物語)』, 『가마쿠라큐다이키』 등 여러 책에 실려 있다. 공통된 내용은 우지야스의 히라이 성 침공으로 전투에서 패배한 노리마사는 13세에 불과한 적자를 성에 남겨두고 혼자 에치고로 도망가서 우에스기 겐신에게 복수를 의탁하며 간레이 직을 넘겨준다. 다쓰와카마루는 결국 유모와 그 일당의 배신으로 우지야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가신들은 주군을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우지야스에 의해 거열형에 처한다. 료이는 『오토기보코』의 「지옥 소생」에서도 다쓰와카마루와 그 가신들의 말로를 언급하였다. 이처럼 『오토기보코』 작품 속에는 노리마사의 아들과 딸이 모두 단명(短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리마사에 대한 료이의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노리마사가 저지른 업보가 결국 자손에게 돌아갔다는 교훈적이 해석이 가능하다.

4. 나가기

이상으로 『오토기보코』의 「지옥 소생」, 「청백리」, 「유령과 인연」, 「사슴의 죄」 등 네 편의 이야기를 전거 작품인 「영호생명목록」, 「소소」, 「증계형」, 「용서인류관」 등과 비교하면서 작자 료이가 작품 속에서 호조 가문의 숙적 미우라 가문과 우에스기 가문의 인물과 사건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토기보코』 번안 과정에서 불교 수용과 미우라, 우에스기 가문에 대한 작자의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네 편의 이야기를 살펴

45) 김지수 옮김(2002), 앞의 책, p.220.

본 결과 불교적인 색채가 짙은 지옥담과 인과응보담인 것을 확인하였다.

「지옥 소생」에서 주인공의 강직한 유학자 상(象)은 죽음을 앞두고 무사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여 그 이름을 후대에 남기려는 도슨과 그 가문의 인물에 대한 투영으로 볼 수 있다. 군서 『가마쿠라큐다이키』와 『호조키』, 『호조고다이키』, 가나조시 『고로모노가타리』에는 미우라 도슨과 아들 아라지로의 최후의 모습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가마쿠라큐다이키』의 서술에서, 죽음을 앞두고 가신들이 피신할 것을 권유하지만, 도슨은 이미 천명이 다했고, 숨어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기보다 무사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여 이름을 후대에 남기겠다고 한 말은 유교적 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관리(官吏)를 다룬 「청백리」와 남성의 인육(人慾)을 다룬 「유령과 인연」 「사음의 죄」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노리마사의 가신이 등장하는 것이다.

「청백리」의 주인공 쇼하치는 청렴한 숙부의 뒤를 이어 다이칸 직에 오르지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그 업보로 저승사자에게 끌려간다. 「사음의 죄」에서 주인공 시라이시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관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주군을 알현하고자 했다. 이는 주군의 어리석고 나약함을 이용하여 간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탐관오리들이 득실거리며 재력과 권력으로 관직을 세습해 나가려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작자의 비판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유령과 인연」 「사음의 죄」 두 이야기는 남성의 인육을 다루고 있다면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시라이시 성을 가진 인물은 노리마사의 가신으로 두 이야기에 모두 등장한다. 「유령과 인연」에서 시라이시는 주군의 딸을 사모하다 죽임을 당하고, 그 망령의 소행으로 딸 이야코마저 목숨을 잃는다. 「사음의 죄」에서 시라이시는 주인집 딸을 간음하여 결국 출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작자는 두 이야기를 통해 사음의 대가는 매우 크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요컨대 『오토기보코』에서 우에스기 가문 사람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사음을 행하는 부정적인 인물로만 등장하는데, 이는 우에스기 노리마사가 간토 간레이로 있던 시절 그 가문의 가풍과 어리석고 주색을 즐긴 주군 노리마사의 인품과 관련이 있다. 이는 료이의 군서 『가마쿠라큐다이키』의 서술을 통해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공자 『논어』, 박헌순 역주(2008) 『論語集註』 2, 도서출판 한길사, p.23, p.114.
- 金永昊(2008) 「『剪燈新話』의 翻案과 아시아 漢字文化圈 怪異小説의 成立—地獄譚 「令狐生冥夢錄」의 翻案을 中心に」 『二松』 第22号, 二松学舎大学, pp.275-306.
- 김지수 옮김(2002) 『불가록』 전남대학교 출판부, p.215, p.219, p.220.
- 김지훈(2019) 『孔子 正名思想에 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9.
- 박애화(2019) 「『오토기보코(伽婢子)』의 전거자료에 대한 일고찰—다케다 신겐 관련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日本研究』 第32輯, 고려대학교글로벌일본연구원, pp.170-202.
- _____ (2019) 「『오토기보코(伽婢子)』의 도고 수용과 호조(北條) 가문」 『일본어문학』 第83輯, 한국 일본어문학회, pp.151-176. (DOI: <http://dx.doi.org/10.18704/kjill.2019.12.83.151>)
- 朴在鍾(1935) 『太上感應篇』 中央印刷所, p.3, p.5.
- 법회연구원(1998) 『무량수경』, 정우서적, pp.130-132, p.131.
- 이용미 역(2013) 『오토기보코』, 세창출판사, p.113, p.215, pp.324-325, pp.396-397.
- 최문형(1998) 「공자의 天命論과 鬼神論」 『東洋哲學研究』 第18輯, pp.343-362.
- 한성자(2013) 「경전을 통해서 본 성과 성교육에 대한 불교의 관점」 『종교교육학연구』 제42권, 한국종교교육학회, p.8.
- 瞿佑(1378) 『剪燈新話』, 최용철 옮김(2005) 『전등삼종』(상), 소명출판, p.114.
- 浅井了意(1666) 『伽婢子』, 花田富二夫等 校注(2001) 『新日本古典文学大系75—伽婢子』 岩波書店刊行, p.97, pp.189-190, pp.290-291.
- _____ (1672) 『鎌倉公方九代記』, 国史研究会 編(1914) 『国史叢書 鎌倉公方九代記·鎌倉九代後記』 国史研究会, pp.267-278, p.269, p.272, pp.339-340, pp.350-351.
- 高坂昌信 『甲陽軍鑑』, 酒井憲二 編(1994) 『甲陽軍鑑大成』 第一卷 本文篇 上, 汲古書院, pp.121-145.
- 著者不明 『北条記』, 萩原竜夫 校注(1966), 『北条史料集 北条記·北条五代記』 戦国史料叢書 第二期 第一卷, 人物往来社, pp.90-96.
- 花田富二夫(1981) 「『伽婢子』 教訓的要素の考察—原話離れを中心に—」 『有明工業高等専門学校紀要』 第17号, pp.13-25.
- 松田修(1957) 「『浮世物語』の挫折—仮名草子における批判的リアリズム—」 『国語国文』 第二十六卷 第五号, pp.31-46.
- 三浦浄心(1641) 『北条五代記』, 萩原竜夫 校注(1966) 『北条史料集 北条記·北条五代記』 戦国史料叢書 第二期 第一卷, 人物往来社, p.256.
- 『日本国語大辞典』(小学館) 「翻案」 항목.
- 『国史大辞典』(吉川弘文館) 「郡代·代官」 항목.

논문 투고 일자 : 2019. 12. 30.

논문 심사 일자 : 2020. 01. 28.

게재 확정 일자 : 2020. 01. 30.

＜要旨＞

『伽婢子』의 仏敎受容
— 北条一族의 宿敵物語를 中心에 —

朴愛花

本稿は、『伽婢子』作品の中で、戦国時代北条一族の宿敵であった三浦一族と上杉一族に関わる「地獄を見て蘇」「廉直頭人死司官職」「祈て幽霊に契る」「邪姪の罪立身せず」の四つの物語を中心に、その登場人物と翻案意図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研究の結果、四つの話は仏教的色彩の濃い地獄譚と因果応報譚であることを確認した。「地獄を見て蘇」の主人公の剛直な儒学者のイメージは、死を目の前にして武士の名譽の為に命を捨て、名を後代に残そうとする三浦道寸と家臣の投影である。官吏の話である「廉直頭人死司官職」と男性の人欲を扱った「祈て幽霊に契る」「邪姪の罪立身せず」三つの物語の共通点は上杉憲政の家臣が登場することである。その家臣は百姓を搾取し、邪淫をするマイナスのイメージがついている。その理由は上杉憲政が関東管領を務めた際に上杉一族の家風と愚かな主君の性格と密接な関係があるからである。

Acceptance of Buddhism in Otogibouko:
One aspect of the story of the old enemy of the Houjo family

PIAO, AIHUA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s and authors' intentions in literary adaptations, based on four stories: "Revived after seeing hell (地獄を見て蘇)"; "The upright civil servant who received a government position after death (廉直頭人死司官職)"; "Form connection with a ghost upon making a wish (祈て幽霊に契る)"; and "Unable to achieve prestige due to the sin of adultery (邪姪の罪立身せず)." These stories concern the Miura family, an old enemy of the Houjo family, as well as the Uesugi family. The research confirmed that these four tales of hell and retribution have a strong Buddhist color. The image of the main character as an upright Confucian scholar in "Revived after seeing hell" can be interpreted as a projection of the character of Miura Dosun and his family, who wish to leave their name behind by choosing an honorable death as samurai. The commonality of the three stories "The upright civil servant who received a government position after death," dealing with a government official; "Form connection with a ghost upon making a wish"; and "Unable to achieve prestige due to the sin of adultery," dealing with male desire is the appearance of Uesugi Norimasa's retainers. They appear only as negative figures who exploit the people by playing sly, obscene games the whole time. This seems to be related to family customs and the personality of the foolish master, Uesugi Norimasa, when he was a Kanto-Kanrei.